사찰 경내에 첫 '요양병원' 들어서다

동행의료재단, 김포 용화사에 '보리수요양병원' 개원

사찰경내에 요양병원이 들어서 눈길을 끈다. 김포 용화사 경내에 약 300평부지 전문요양병원이 문을 열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면 뒤편 법당서 불경소리가 들려올 만큼 가까이 위치해 있다.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이사장 지관)은 지난 7월 1일 김포 용화사 경내에 '보리수요양병원' 을 열고, 공식 개원식을 앞두고 있다. 건축연면적 4,494㎡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137병상을 보유 중이다.

보리수요양병원은 운양산을 등지고 한강하구를 바라보는 자연적 입지조건을 갖췄다. 이사장 지관 스님은 "현재 병원 앞에 공사 중인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완공되고 용화사IC가 개통되면 교통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인근에 위치한 김포한강신도시 생태조류공원을 활용한 걷기 명상 등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라 설명했다.

또한 나무 손잡이, 한옥창살, 나무벽 등 건물 내 모든 시설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다. 일반 병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 벽에 형광등이 아닌 베이지톤, 자연광등을 사용해 환자들의 안정감을 고려했으며,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층 바닥 난방을 가동한다.

특히 1인실에는 편백나무 욕조가 설비됐으며, 6~7인실에는 디지털도어락이 설치된 개인 사물함 및 냉장고가 마련됐다. 복도 포함 전 병동서 산 또는 강을 전망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관 스님은 "우리 병원에 '메디텔(메디컬+호텔)' 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싶다"며 "병원 구석구석에서 풍겨오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아 모든 환자들이 하루 빨리 쾌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리수요양병원은 '요양원' 혹은 '노인병원' 이 아니기 때문에 만성치료를 요하는

300평부지 5층 규모, 137병상
'산 아래 한강조망' 자연적 입지
재활 · 한방 · 가정의학 등 진료
바닥난방 · 한옥창살 시설 '눈길'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진료과목은 재활의학과 · 한의과 · 가정학과 · 신경과 등이며, 재활치료실 등 부속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병원으로 승인받아 교통사고 등 산재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환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마련될 계획이다. 옥상에는 원예 등 활동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병원과 연결된 108평 규모 명상센터서는 심리명상 등 불교적 치유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지관 스님은 "주사, 약 등 물리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불교적 치료요소 등 도입함으로써 질 좋은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다.

지관 스님은 평소 불교계 요양병원이 이웃종교보다 부족해 스님 혹은 불자 환자들이 정서에 맞지 않는 병원에 머물러야 하는 점에 안타까워했다. 또한 최근까지 김포종합사회복지관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 등 6개 기관을 운영하며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 두기 시작한 것도 계기중 하나다. 이에 요양병원을 건립할 원력을 세우고 일본을 수차례 오가며 요양병원의 운영방향, 경영철학 등 습득했다.

지관 스님은 "의료와 보건, 복지 3가지는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며 "간혹 벌어지는 비인간적, 비윤리적인 의료 행태에 맞서 환자들의 건강과 쾌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요양병원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김포 용화사= 박아름 기자

보리수요양병원 전경.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은 지난 7월 1일 김포 용화사 경내에 '보리수요양병원' 을 개원했다.

"김시습 사리, 감사 통해 되찾겠다"

문화재제자리찾기, 10월 5일 반환 감사청구

율리사지 석탑은 도쿄서 조정 결렬
본안 소송 불가피, 日불교계와 연대

불교문화재제자리찾기(상임대표 영담)와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는 10월 6일 서울 공평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일 감사원에 국립부여박물관이 소장 중인 설잠 스님(김시습) 사리를 원봉안처 부여 무량사로 반환하라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담 스님과 혜문 스님은 "국립부여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충남 무량사에 위치한 매월당 김시습 부도로부터 사리를 임의로 가져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며 △사리는 문화재가 아니라 유골의 일부 △사리와 사리함, 부도는 불가분의 일체물 △국립부여박물관의 사리 보관 태만 등을 들어 반환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재제자리찾기와 문화재제자리찾기는 9월 16~18일 두 단체가 일본에서 진행한 율리사지 석탑 반환 운동 경과도 밝혔다.

9월 17일 도쿄 스미다구 간이재판소에서 열린 조선불교도연맹과 오쿠라문화재단의 율리사지 석탑 반환 요청에 따른 2차 조정에서 도쿄재판소는 "석탑 반환은 국제관계적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혜문 스님은 "석탑 반환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전일본불교연합회에 율리사지 석탑 반환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불교문화재제자리찾기 상임대표 영담 스님, 공동대표 혜문 스님, 위원인 부명 · 각명 · 도응 스님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천태종 황룡사, 100일 기도로 통일기금 마련

1명당 매일 1000원씩, 통일나눔펀드 지원

인천 황룡사가 100일 기도를 통해 통일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동참을 원하는 신도들이 매일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를 올리며 1000원씩 모아 100일 후에 기부한다는 것이다.

황룡사(주지 세운)는 10월 4일 경내 특설무대서 '2015 민족화합문화제' 의 일환인 음악제를 개최하고, 통일기금 조성 후 통일과나눔재단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지 세운 스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정성이다. 한 번에 10만원을 내고 잊는 것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매일 정성 들여 1000원씩 100일간 모은 기금이 훨씬 소중하다"면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내서 동참하고, 이 운동이 전국 천태말사에 퍼져 천태종이 한반도 통일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룡사는 이에 앞서 통일과나눔재단 통일나눔펀드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100일 기도 회향 후 모연된 기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경내에 통일범종을 조성해 내년 초파일 전 타종식을 열고, 타종체험 등을 통해 통일기금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음악제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과 감사원장 용암 스님을 비롯해 이학재 국회의원, 강범석 인천서구청장,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지역 소외계층, 군인, 불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황룡사는 10월 4일 경내 특설무대서 '2015 민족화합문화제' 의 일환인 음악제를 개최하고, 통일기금 조성 후 통일과나눔재단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 '마음나눔' 바자

10월 14일~15일 조계사 일대서 광장 기금 마련 캐리커쳐 展도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은 10월 14일~15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 및 조계사 일대서 '제8회 다함께 마음나눔 바자' 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에는 여성불자 108인들의 애장품 및 미술 작품, 생활용품, 식품 등 다양한 물품이 기증됐다.

특히 불교여성광장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캐리커쳐전도 함께 열렸다. 바자 기간동안 나무갤러리서 전시된 캐리커쳐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을 비롯한 70여 명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여성의류, 약초, 전통 장류, 건어물, 젓갈류, 대추 · 생과자 등 판매 부스를 비롯해 김치전, 연잎밥, 생강대추차 등 즉석 식품 판매 코너도 마련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제2의 개국불사로 세상 밝힐 것"

선상신 BBS 9대 사장 10월 8일 취임식 개최

"개국 당시의 감동과 환희를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제2의 개국불사를 펼쳐나가겠습니다."

BBS불교방송은 10월 8일 서울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제9대 선상신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 스님과 홍사덕 민족화해협력의회 대표상임의장, 강창일 국회정각회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구상에 현존하는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극복하고 부처님의 실천적 자비와 지혜로 맑은 세상이 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불교방송의 미래 비전"이라며 "취임 전 밝힌 바대로 6대 목표와 28대 과제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 'BBS글로벌미디어센터 건립' '음악FM 확보 · TV 시청권 확대' '전문화된 콘텐츠 제작역량 확보' '남북 불교교류 협력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방송 공채 1기 출신으로 방송 근간을 만들기 위해 진력해온 선상신 사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부처님 법음 전파와 중생 보살화, 사회 정토화를 통한 새로운 인류문명창조의 설립이념을 되새겨 더욱 발전하는 불교방송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상신 사장은 1989년 불교방송 공채 1기로 입사해 보도국장을 역임했다.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이사, 한반도선진화재단 아태전략연구소장 등을 맡았다.

신성민 기자

BBS불교방송은 10월 8일 서울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제9대 선상신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 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회	주	성타	관	장	종상
주	지	종우	학	장	덕민
부 주	지	정문	총	무	종천
교	무	정수	재	무	성명
사	회	정빈	포	교	탄경
문	화	성요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경상북도 경주시불국로 38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